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출신

전직 부장검사가 알려주는 수사·재판 꿀팁!

-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 변호사(前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제공 ·

Know How List

- 형사사건 있으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 변호사 선임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 판·검사, 경찰이 정말 싫어하는 5가지

내 삶이 망가지는
형사사건

나를 구제해줄 꿀팁



유튜브 2천만 조회



김부장의



검사와전
A Competent Prosecutor

TALK

카카오 상담

010-5581-0901

조사과외.com

형사 사건이 있으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Q. 진실이 밝혀지고, 진실대로 결론나겠죠? **NO**

A. 판·검사, 경찰은 진실을 모릅니다. 목격한 적이 없으니까요. 증거로 입증된 사실만 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증을 못하면, 진실도 지는 것입니다. 입증된 대로 결론이 나지, 진실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Q. 사실대로 말할 건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YES**

A. ▲유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가해자 처벌을 못하고, ▲불리한 사실을 더 불리하게 말해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법률적으로 유의미한지 모르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유의미한 사실을 “찾아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몰라서 못합니다.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Q. 당황해서 잘못 진술했어요. 나중에 고치면 되죠? **NO**

A. 진술을 고치면, 진술 번복이 됩니다. 이러면, 일관성 없는 진술로 취급해서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진술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크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사건 개시와 동시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조사 받는 연습을 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Q. 판·검사, 경찰을 믿고 기다리면 되겠죠? **NO**

A. 내 사건은 판·검사, 경찰은 처리하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판·검사, 경찰도 사람이어서,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려면, 당사자가 잘 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찾아서, 간명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비전문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Q. 변호사에 따라서, 수사·재판 결과가 달라지나요? **YES**

A. 변호사 실력에 따라 변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지요. 돌팔이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듯이, 무능한 변호사는 이길 사건도 집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 의뢰인 말만 받아써 제출하지요. 이기는 전략은 유능한 변호사 만이 압니다. 변호사 자격이 실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2천만 조회



하위·형정·수선 변호사
김부장의



검사와전
A Competent Prosecutor



카카오 상담

010-5581-0901

조사과외.com

[피의자]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Q. 허위·과장 고소인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할 필요 있나요? **YES**

A. 판·검사, 경찰은 허위·과장 고소인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아니어서 진실을 보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위·과장 고소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고 구속됩니다. 그래서, 무대응은 바보짓입니다.

Q. 잘못 인정하고 자백할 건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YES**

A. 음주운전은 대부분 자백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집행유예, 누구는 실형을 받습니다. 법원·검찰의 선처 기준에 부합하는 '나만의 선처 사유'를 찾았을 때만, 형량이 낮아집니다. '나만의 선처 사유'는 유능한 변호사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Q. 겁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했습니다. 관철을까요? **NO**

A. 조사받기 전에, 뭘 물을지 예상해서, 뭐라고 답할지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황했을 때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드러나면 끝장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의 말은 믿어 주지 않고, 상대방 말을 믿어줍니다. 나아가, 괴심죄 이슈까지 생깁니다. 정말로 말조심해야 합니다.

Q. 경찰·검사 조사가 친절하게 끝났습니다. 결과도 좋겠조? **NO**

A. 조사의 친절과 결과의 친절은 별개입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경찰·검사 조사가 친절해졌고, 수사 단계 구속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다고 오해하고, 수사에 대응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다가, 기소되고 법정 구속됩니다. 기소되면, 무죄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친절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Q.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경찰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말할 기회를 주겠지요? **NO**

A.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할 말이 더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검사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지요. 경찰 결론이 나에게 불리하다면, 반드시 검사에게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는 법입니다.

유튜브 2천만 조회



김부장의



검사와전

A Competent Prosecutor



카카오 상담

010-5581-0901

조사과외.com

[피해자]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Q. 가해자는 당연히 엄벌받겠죠? **NO**

A. 피해를 당했어도, 이를 증명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겠죠. 하지만, 소송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에 이기는 게임입니다. 입증되지 않는 사실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명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가해자가 당연히 처벌되는 법은 없습니다.

Q. 피해자 말을 믿어주는 것이 당연하죠? **NO**

A. 판·검사, 경찰은 중립입니다. 한쪽 편을 들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증한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고, 피해당했다는 증거를 수집·제출해야 합니다.

Q. 경찰·검찰이 피해당한 것을 밝혀주는 것이 당연하죠? **NO**

A. 경찰·검찰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알기 쉽게 피해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경찰과 검사는 피해 상황을 목격한 적도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말이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Q. 가해자도 아닌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YES**

A. '법률적·실무적으로 믿어주는 방식'으로 피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하면 믿어주고, 누가 하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말 한 마디 잘못하면, 피해자의 말도 안 믿습니다. 가해자는 유유히 빠져나가지요. 이런 억울함을 막으려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Q. 피해 진술하다가 조금 과장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YES**

A. 과장·허위 진술을 하면, 피해 진술 전체를 믿어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능적인 가해자는 함정을 파서, 피해자의 과장·허위 진술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했다고 공격하지요. 이런 함정에 빠지면,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유튜브 2천만 조회



김부장의



검사와전

A Competent Prosecutor



카카오 상담

010-5581-0901

조사와외.com

변호사 선임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Q. 좋은 변호사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실력과 안심 변호사

- 실무를 체계적으로 배웠고, 경험 풍부
탁월한 경력으로, 법원·검찰에 유명
- 사건을 유형화하여 구도를 잡고, 사건의
유형 별로 최적화된 주장·입증 기법 사용
- 유·무죄, 양형을 정확히 예측
실무에 부합하는 전략적 해결책 수립
- 성공이라는 **“결과”**를 중시
의뢰인 감탄(“이게 되는군요!!”)

헛발질 위험 변호사

- 실무를 제대로 배운 적 없고, 경험 부족
내세울 경력 없고, 법원·검찰에 무명
- 사건은 유형이 있으며, 유형 별로 주장,
입증 기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모름
- 유죄, 무죄 및 양형 등을 잘못 예측하여
실무와 동떨어진 황당한 해결책 수립
- 무엇인가 했다고 **“보여주는 것”**을 중시
의뢰인 탄식(“이럴 수가!! 망했어!!”)

실력과 VS 헛발질 변호사 판별법

- 쉬운 말로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
잘 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
- 사건 유형·특성에 따른 쟁점 예상
의뢰인이 생각도 못한 핵심을 체크·대처
- 이길 사건은 이기는 전략, 지는 사건은 피해 최소화
사건 별 전략을 정직하게 추천
- 의뢰인과의 소통과 협업을 중시
의뢰인의 피드백 반영, 불안감 해소

- 전문용어로 일반인이 알 수 없게 설명
잘 모르니, 더 어렵고 더 복잡한 설명
- 의뢰인의 말 받아쓰기 하는 수준
핵심을 들어도, 반영할 생각을 못함
- 이길 사건인지, 질 사건인지 구별 못함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의뢰인을 현혹
- 의뢰인과 불통, 연락 기피
의뢰인 의견 경시, 불안과 불만 폭증

유튜브 2천만 조회



김부장의



검사와전

A Competent Prosecutor



카카오 상담

010-5581-0901

조사과외.com

Q. 전관 변호사면 무조건 믿어도 되나요? **NO**

A. 전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검찰·법원의 내부 기준을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합니다(판·검사 시절 매달 수백건의 사건을 처리). 하지만, 전관 변호사들도 실력차가 많고, 그중 일부는 저연차 변호사, 사무장에게 일을 떠넘기고 대충 변론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실력과 성의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Q. 전국지사 등 대형로펌, 전관 변호사, 변호사 5~6명의 전담팀을 내세우는 광고를 보고 선임했습니다. 실제로는 1~2년차 변호사가 혼자 변론했고, 너무 어설프고, 결과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변호사 광고를 믿어도 될까요? **글쎄요..**

A. 전관 등 변호사 5~6명의 전담팀이 실제로 일하면,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이런 비용을 안 쓰셨다면, 전담팀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1~2년차 변호사가 매월 50여건을 혼자 처리하면서, 내 사건도 함께 처리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광고는 검증해야 하는 겁니다.

Q. 수임료도 싸고, 무료 상담을 해준답니다. 한번 가볼까요? **글쎄요..**

A. 입장 바꿔 생각해보죠. 내가 유능한 변호사라면, 고생해서 얻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짜로 줄까요? 싸게 팔까요? 변호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가격이 싸면 품질이 낮겠고, 무료 상담하면 선임을 유도하겠죠. 형사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러다 구속되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Q.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가, 상황이 나빠졌을 때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요? **NO**

A. 일단 상황이 악화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을 번복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첫 인상이 잘못 박히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습니다. 수사·재판 초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때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유튜브 2천만 조회



하위·형량·형식·후속 변호사

김부장의



검사와전

A Compulsory Prosecutor



카카오 상담

010-5581-0901

조사과외.com

판·검사, 경찰이 정말 싫어하는 5가지

Q. 억울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말해도 되나요? **NO**

A. 판·검사, 경찰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바빠서 시간도 부족합니다. 사건은 대부분 비슷비슷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고 길게 말하면,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정말로 듣기가 싫습니다. 핵심을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판·검사, 경찰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해도 되나요? **NO**

A. 절대로 안 됩니다. 판·검사, 경찰은 미리 생각해둔 순서대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앞세워 동문서답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조금씩 거짓말을 섞었는데, 판·검사, 경찰이 모르고 넘어가겠지요? **NO**

A. 판·검사, 경찰은 거짓말을 판별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항상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살피고, 당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지 검증합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 ‘못 믿을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당연히 매우 싫어하지요. 유죄가 되면, 형량이 확 올라갑니다.

Q. 조사·재판 일정, 합의 기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글쎄요..**

A. 조사·재판 일정, 합의 기한 등은 판·검사, 경찰과의 약속입니다. 이를 함부로 변경하면,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건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절차적 불이익도 받습니다. 예컨대, 증인 신청이 기각되거나, 조사 요청 사항을 수사해주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을 “거짓말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NO**

A. 특별한 근거도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함부로 비하하면,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내 말의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이런 증거로 상대방의 거짓말이 입증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는 인신공격은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유튜브 2천만 조회



김부장의



검사와전

A Competent Prosecutor

TALK

카카오 상담

010-5581-0901

조사과외.com